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는 저자와 독자가 문자 언어를 매개로 상호작용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이란 저자가 글로 구성한 메시지를 독자가 주체적으로 사고하여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은 저자가 독자의 독서 과정을 염두에 두고 글을 작성할 때부터 시작된다. 저자는 글을 작성하기 전에 독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 등을 예측하고, 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글감으로 선정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 글을 쓸 때 저자는 독자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생략하기도 한다.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내용을 숨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숨겨진 정보를 독자들이 추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단서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저자는 독자의 독서 과정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글을 쓰고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독자의 입장에서 저자와의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자는 저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며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으로 저자와의 의사소통에 응한다. 글을 읽으며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하기도 한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숨겨진 내용이나 저자의 의도를 추론하며 깊이 있게 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거나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기도 한다. 나아가 독서를 하며 새로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등 독서 활동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지식과 독해 능력, 독서 태도 등에 따라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게 된다. 즉 독자는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1.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자와의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독자가 글의 주제를 찾으며 읽는 방식
- ② 독자가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 습득하며 읽는 방식
- ③ 독자가 독서 목적에 따라 자신의 독서 계획을 점검하며 읽는 방식
- ④ 독자가 글을 읽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글을 찾아 읽는 방식
- ⑤ 독자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의 생각을 비판하며 읽는 방식

2.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산의 바다 안에는 ㉠ 어족이 매우 번성하여 이름을 아는 자가 드무니 ㉡ 사물에 정통한 자가 마땅히 살펴야 할 바이다. 나는 이에 널리 섬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계보를 만들 생각을 하었는데, 사람마다 각자 말이 달라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 나는 마침내 그를 불러들여 머무르게 하면서 그와 함께 연구하고 차례를 매겨 책을 완성하고는 ‘자산어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 이외에도 바다의 날짐승과 해초류까지 언급하여 ㉣ 후대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로 삼았다. 다만 나는 고루하여 혹 이미 본초서에서 보았는데도 그 이름을 듣지 못하였거나, 혹 ㉤ 옛날에 이름이 없는데 고증할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그래서 단지 민간에서 부르는 이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상스러워 읽을 수 없는 것은 그때마다 감히 이름을 새로 지었다.

— 정약전, 『자산어보』 서(序) —

- ① ㉠에서는 저자가 독자의 사전 지식을 예측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에서는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이 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에서는 저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내용을 숨긴 것임을 확인할 수 있겠군.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심리학자 바틀렛은 관심사가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디언 전설’을 읽게 한 후, 시차를 달리하여 여러 번 그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원문의 내용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해한 후 서로 다르게 기억해 내는 특징을 보였다.

- ① 독자의 독해 능력은 동일한 글을 반복하여 읽을수록 향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독자의 배경지식에 따라 글을 이해하고 재구성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③ 독자가 저자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글을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④ 독자마다 독서 태도가 다르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습득하는 정보의 양은 비슷해지기 때문이다.
- ⑤ 독자가 저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른 독자와 공유하기 때문이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도덕적 규범을 구체적인 현실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유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로 설명하고 있다. 상도는 일반 상황에서의 원칙론으로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보편적 규범이고,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상황론으로서 그 상황에 일시적으로 ㉠ 대응하는 개별적 규범이다.

도(道)는 인간 존재의 형이상학적 원리와 인간이 생활 속에서 따라야 하는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이다. 상도는 도를 인간의 도덕적 원리로 연결한 인(仁), 의(義), 예(禮)와 같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도덕규범이다. 상도를 근거로 상황 변화에 알맞게 대응할 때 도가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데, 이때 권도가 필요할 수 있다.

맹자는 권도를 일종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 해법으로 제시한다. 맹자는 “남녀 간에 주고받기를 직접 하지 않음은 예(禮)이고, 형제의 부인이 물에 빠지면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權)이다.”라고 하였다. 남녀 간에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상도에, 형제의 부인을 손으로 구하는 것은 권도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권도는 특수한 상황에서 부득이 한 번만 사용하는 것으로, 높은 경지의 상황 판단력을 요한다. 상황의 위급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방안 중 스스로 선택한 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될 때에만 권도가 합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권도의 합당성은 실행의 동기와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맹자의 말에서는 권도에 해당하는 규범이 상도인 ‘예’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권도가 상도에 반하거나 또는 예가 아니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맹자의 관점에서 상도와 권도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달라도 결국 모두 도이다. 권도는 도를 굽힌 것이 아니라 도를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위의 상황에서 남녀 간에 손을 잡는 행위 자체는 상도에 맞지 않는 것이지만, 그 행위는 결국 생명을 구하여 도를 실천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것이다.

맹자는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로서 권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상도를 권도의 기반으로 보며 매우 중시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본질인 상도를 따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맹자는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나)

병자호란 당시 청이 조선에 제시한 강화 조건은 조선이 ㉢ 고수해 왔던 명에 대한 의리, 곧 대명의리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에 ㉣ 척화론자들은 대명의리를 지켜야 하므로 청과의 화친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당대인들은 조선과 명을 군신(君臣)이자 부자(父子)의 의리가 있는 관계로 보았고, 특히 임진왜란 때 명의 지원을 받은 후 대명의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척화론자들은 불의로 보존된 나라는 없느니만 못하다고까지 하면서 척화론을 고수하였다. 이때 이들이 우려한 것은 명의 ㉤ 문책이라기보다는 대명의리라는 보편적 규범의 포기야 따르는 도덕 윤리의 붕괴였다고 할 수 있다. 척화론은 실리의 문제를 초월한 의리의 차원에서 당시뿐 아니라 후대에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 최명길 등의 주화론자들은 나라를 보전하기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명길도 대명의리가 정론(正論)임을 인정하였고, 강화가 성립된 후에도 대명의리를 계속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 논거를 들어 청과의 화친이 합당한 판단임을 주장했다. 우선 그는 척화론자들의 ‘나라의 존망을 헤아리지 않는 의리’를 비판하였다. 중국 후진의 고조는 제위에 오를 때, 이민족 거란이 세운 요나라의 힘을 빌리며 신하가 되기를 자처했다. 그런데 다음 황제 때에 신하 경연광이 요의 신하라고 칭하는 것을 그만두자는 강경론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요가 침입해 후진은 멸망하였다. 이에 대해 유학자 호안국은 천하 인심이 오랑캐에게 굽힌 것을 불평하고 있었으니 한번 후련히 설욕하고자 한 심정은 이해할 만하지만 정치적 대처 면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죄는 ㉦ 속죄될 수 없다고 경연광을 비판했다. 최명길은 이 ㉧ 호안국의 주장을 인용하며 신하가 나라를 망하게 하면 그 일이 바르다 해도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최명길은 조선이 명으로부터 중국 내의 토지를 받은 직접적인 신하가 아니라 해외에서 조공을 바치는 신하일 뿐이기 때문에 명을 위해 멸망까지 당할 의리는 없으며 조선의 임금은 백성과 사직을 보전할 책임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춘추』에 따르면 신하는 먼저 자기 자신의 임금을 위해야 하므로, 조선의 신하가 명을 위하여 조선을 망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 마땅한 의리라고 하였다.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실현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의 역사적 한계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의 이론상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을 반박하는 주장들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에 대한 사상가의 견해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에 대한 정치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한 철학적 개념이 역사적 현실에 적용된 사례를, (나)는 특정한 대외 정책이 학문적 논의의 주제가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맹자는 도를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해 도를 굽히는 것이 권도라고 보았다.
- ② 유학에서는 도를 형이상학적 원리와 행위 규범을 동시에 담는 개념으로 보았다.
- ③ 유학에서는 기본적인 보편적인 도덕규범으로 인, 의, 예와 같은 것이 있다고 보았다.
- ④ 맹자는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상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⑤ 맹자는 상도와 권도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된 속성이 있다고 보았다.

6. (가)의 맹자와 <보기>의 칸트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칸트는 언제나 지켜져야 하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실천 기준으로서의 도덕규범을 제시하였다. 가령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도덕규범이 양심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선의의 거짓말도 옳지 않은데,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① 맹자는 칸트와 달리, 도덕규범을 통해 어떤 행위를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맹자와 달리, 상황에 따라 어떤 도덕규범을 지켜야 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맹자와 달리,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④ 맹자와 칸트는 모두, 보편적인 도덕규범보다 현실 상황에 맞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 ⑤ 맹자와 칸트는 모두, 생활 속에서 도덕규범을 어김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본질적인 가치를 얻게 될 때도 있다고 보았다.

7. 호안국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 ① 이민족이 세운 나라의 힘에 의존함으로써
- ② 이민족의 나라에 자존심 없이 신하를 자처함으로써
- ③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 설욕할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써
- ④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국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 ⑤ 이민족의 나라라고 해서 현실적인 고려 없이 적대함으로써

8. (가)를 바탕으로 (나)의 ㉠,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불의한 방법으로 나라를 보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한 것은 도덕규범에 있어 상황론보다 원칙론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②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 대명의리는 당대인들에게 일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보편적인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어.
- ③ ㉡이 『춘추』의 내용을 언급하며 신하가 지켜야 할 의리를 논한 것은 실행 동기를 따지지 않고 도덕규범을 현실에 적용한 논의로 볼 수 있어.
- ④ ㉡이 대명의리가 정론임을 인정하면서도 청과 화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한 것은 상도의 토대 위에서 권도를 활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⑤ ㉡이 나라의 보전을 위해 청의 강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판단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권도를 사용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9.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
- ② ㉡: 해내기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푸는 방법.
- ③ ㉢: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지킴.
- ④ ㉣: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깊이 뉘우치고 자신을 책망함.
- ⑤ ㉤: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10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고정비로 구분된다. 영업고정비는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영업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 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레버리지도이다. 영업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공헌이익이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헌이익에서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ext{영업레버리지도} = \frac{\text{공헌이익}}{\text{영업이익}} = \frac{\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text{매출액} - \text{영업변동비} - \text{영업고정비}}$$

위 수식은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영업고정비가 클수록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변동비가 6억 원, 영업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인 4억 원이 되며,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인 2억 원이 된다.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이는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의 증감이 됨을 뜻한다.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에 의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생산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 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출액이 감소할 때에는 영업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발

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업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사업 전망과 관련지어 영업레버리지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업 전망이 밝은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이익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사업 전망이 흐린 기업이 영업레버리지도가 높으면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시설 투자 혹은 생산 방식의 전환은 기업의 자산 구조를 변화시키고, 이에 따라 비용 구조를 변화시킨다. 즉 이와 같은 의사결정의 문제는 영업레버리지 효과의 변화를 가져와 영업위험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영업고정비를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 ①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②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비용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
- ③ 기업이 비유동자산을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은 사업 전망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 ⑤ 기업의 생산 규모 확대가 매출액의 증감에 따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1. 문맥을 고려할 때 ㉠의 의미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의 영업비와 재무비의 비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② 기업의 공헌이익을 항상 일정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③ 규모의 경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④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 폭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 ⑤ 기업의 영업 성격과 관계없이 기업의 이익을 언제나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군.

12. 영업레버리지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이 소모품비를 많이 사용할수록 영업레버리지도는 점점 감소한다.
- ② 기업이 영업위험의 감소를 위해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면 영업레버리지도는 감소한다.
- ③ 기업의 생산 시설을 확장하여 생산 규모가 커지면 영업레버리지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 ④ 기업의 투자 정책을 판단하기 위해 단위생산원가를 측정하는 도구인 영업레버리지도를 활용한다.
- ⑤ 기업의 영업이익과 공헌이익이 같을 때의 영업레버리지도에 따르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증가한다.

13.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기업은 작년에 A 생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개당 10,000원에 100만 개를 판매하였고, 영업변동비는 개당 9,000원을 유지하였다. 올해는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B 생산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였다.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100만 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영업변동비는 개당 2,000원이 감소하여 7,000원이 되지만, 20억 원의 영업고정비를 새롭게 부담해야 한다는 예측 결과를 얻었다. 다음은 두 생산 방식의 판매량이 10% 증감했을 때를 가정한 표이다.

	A 생산 방식			B 생산 방식		
판매량 증감률(%)	-10	0	+10	-10	0	+10
판매량(만 개)	90	100	110	90	100	110
매출액(억 원)	90	100	110	90	100	110
영업변동비(억 원)	81	90	99	63	70	77
영업고정비(억 원)	0	0	0	20	20	20

- ①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레버리지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겠군.
- ②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판매량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영업이익은 감소하겠군.
- ③ ○○ 기업이 B 생산 방식으로 전환한 후 판매량이 10%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30% 증가하겠군.
- ④ ○○ 기업이 올해의 사업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한다면 A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군.
- ⑤ ○○ 기업이 A 생산 방식을 유지한다면 영업비는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만으로 구성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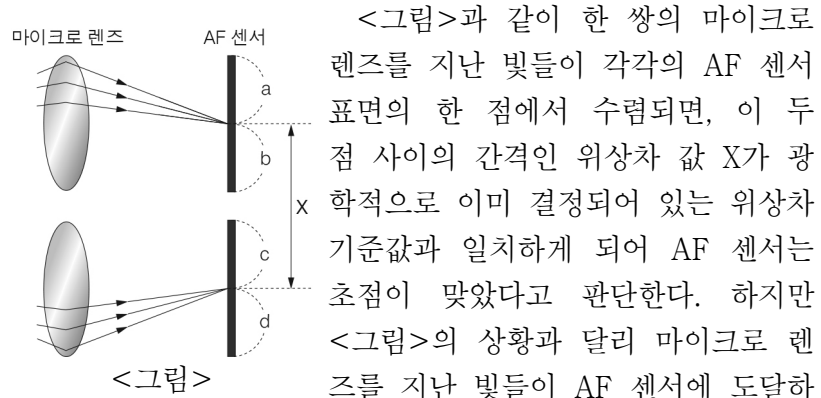
[14 ~ 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디지털 카메라에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자동으로 맞추는 자동 초점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자동 초점 방식은 일반적으로 ㉠ 피사체로부터 반사되는 빛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데, 자동 초점 방식에는 대표적으로 대비 검출 방식과 위상차 검출 방식이 있다.

대비 검출 방식은 촬영 렌즈를 ㉡ 통해 들어온 빛을 피사체의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직접 검출한다. 이 방식은 피사체로부터 반사되어 들어오는 빛들의 밝기 차이인 빛의 대비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빛의 대비가 클수록 이미지 센서에 맺히는 상이 선명해져 초점이 정확하게 맞게 된다. 이런 원리를 활용해 대비 검출 방식에서는 빛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뒤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면서 이미지 센서에 맺힌 상을 분석한다. 이 방식은 촬영 렌즈가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하므로 초점

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는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 하지만 별도의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에서 직접 초점을 검출하기 때문에 초점의 정확도가 높으며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위상차 검출 방식은 상이 맺히는 이미지 센서가 직접 초점을 검출하지 않고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한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 맺히는 빛의 위치 차이인 위상차를 분석하는 원리를 이용한다. 위상차 검출 방식을 활용하여 초점을 맞추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피사체로부터 반사된 빛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거나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하게 된다.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빛은 뷰파인더로 보내져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빛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되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통과하면서 분리되고 각각의 AF 센서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AF 센서에서는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새롭게 측정한 위상차 값을 비교하여 초점이 맞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림>과 같이 한 쌍의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 표면의 한 점에서 수렴되면,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인 위상차 값 X 가 광학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위상차 기준값과 일치하게 되어 AF 센서는 초점이 맞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그림>의 상황과 달리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시킨다. 반대로 마이크로 렌즈를 지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할 때까지 수렴하지 못하게 되면 빛들은 각각 AF 센서의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다. 이 경우 측정된 위상차 값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커지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촬영 렌즈를 앞으로 이동시킨다. 이 방식은 AF 센서에서 초점을 검출하여 촬영 렌즈를 한 번만 이동시키기 때문에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비 검출 방식에서 ㉠은 촬영 렌즈를 통해 들어와 이미지 센서로 바로 보내진다.
- ② 대비 검출 방식에서 촬영 렌즈는 ㉠의 대비가 최대치가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 반복하여 움직인다.
- ③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주 반사 거울을 통과한 ㉠은 보조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다.
- ④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은 초점을 이미지 센서에서 검출하기 위해 마이크로 렌즈로 이동한 후 분리된다.
- ⑤ 위상차 검출 방식에서 주 반사 거울에서 반사된 ㉠은 촬영자가 피사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뷰파인더로 보내진다.

15.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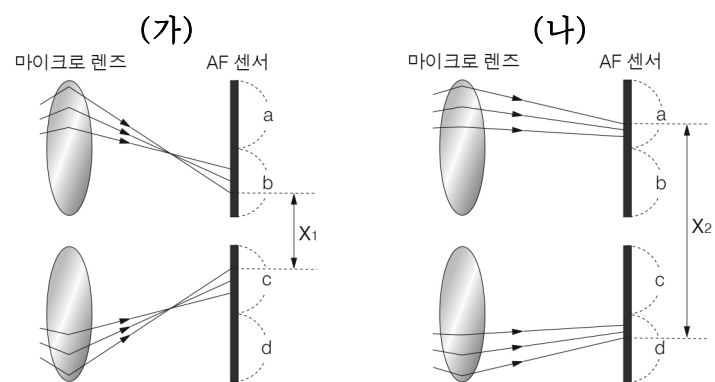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 방식 중에서 (㉣) 방식보다는 (㉤)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어. 왜냐하면 초점을 맞추는 속도가 (㉡) 때문이야.

- | | ㉡ | ㉢ | ㉣ | ㉤ |
|---|--------|--------|--------|-----|
| ① | 자동 초점 | 대비 검출 | 위상차 검출 | 빠르기 |
| ② | 자동 초점 | 위상차 검출 | 대비 검출 | 느리기 |
| ③ | 위상차 검출 | 대비 검출 | 자동 초점 | 빠르기 |
| ④ | 위상차 검출 | 자동 초점 | 대비 검출 | 느리기 |
| ⑤ | 대비 검출 | 자동 초점 | 위상차 검출 | 빠르기 |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다음은 위상차 검출 방식을 적용하는 카메라를 활용한 촬영에서 AF 센서에 빛이 도달하는 과정의 일부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때 X_1 과 X_2 는 각각의 위상차 값을 의미한다.



- ① (가)에서 X_1 을 위상차 기준값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촬영 렌즈는 한 번만 움직이게 되겠군.
- ② (가)에서 빛들이 b 영역과 c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보아 X_1 은 정해진 위상차 기준값보다 작겠군.
- ③ (가)에서 빛들이 AF 센서에 도달하기 전에 수렴된 것으로 보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촬영 렌즈를 뒤로 이동해야겠군.
- ④ (나)에서 빛들이 a 영역과 d 영역에 퍼져서 도달한 것으로 보아 AF 센서는 X_2 를 줄여야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하겠군.
- ⑤ (나)에서 빛들이 각각의 AF 센서 표면의 한 점에 수렴될 수 있도록 촬영 렌즈를 이동해 위상차 기준값을 크게 만들어야겠군.

17.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우리끼리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 ② 그의 주장은 앞뒤가 잘 통하지 않는다.
- ③ 그들은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갔다.
- ④ 이 바닥에서는 그런 알팍한 수는 통하지 않는다.
- ⑤ 나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소식을 통해 온 것을 알고 있다.

[18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별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멀하지 않을 것이다. [A]

2

바윗돌처럼 뚱뚱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B]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햇별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원통 피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짊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뱀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C]

— 신석정, 「역사」 —

(나)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 들이 살았다

별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심검당 별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늦눈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 방이 방 한 칸에 묵은 메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하릴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백 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몽곳이 앓은 그 나무들의 울울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의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 문태준, 「빈집의 약속」 —

(다)

의원이 처음에 들어와 좌정했다. 몸을 기울여 자세히 살피더니만 고개를 들어 소리를 듣는 듯이 하다가 앞으로 나아와 그 맥을 짚어 보았다. 그러고는 물러나 앉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그대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의 낯빛을 살펴보니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대의 맥을 짚어 보니 병은 이미 나왔습니다. 무엇을 더 고치고 싶은지요?”

“나는 야윈 것을 고치고 싶네.”

(중략)

“사는 집이 화려하면 편안해서 살이 찌고, 음식이 사치스러우면 맛이 있어서 살이 찹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보니 기뻐서 살이 찌고, 소리의 가락이 어여쁘지라 즐거워서 살이 찹지요. 이 네 가지를 몸에 지니면 살찌기를 애써 구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살이 찹니다. 저들이야 진실로 그 같은 바탕을 갖추고 있는지라 살찌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제 그대는 이미 가난한 데다 신분도 낮고 쑥대로 엮은 초가집에 살면서 채소와 거친 밥을 먹습니다. 눈은 다섯 가지 채색을 본 적이 없고, 귀는 다섯 가지 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 바탕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살찌기를 구한다면 끝내 살이 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양비(良肥)마저 잃게 될까 염려됩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구려. 내가 진실로 이 네 가지의 것이 없는데 또 병으로 야위기까지 하였소. 어찌 이른바 양비란 것이 있단 말ियो?” 의원이 말했다.

“㉡ 이른바 양비란 것은 화려한 거처나 사치스러운 음식 또는 즐거운 음악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여색을 바탕으로 삼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채우고 인의로 윤택하게 해서 낯빛에 가득 차올라 얼굴에 환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이는 진실로 본래부터 지녔던 것을 온전히 해서 평소에 없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그 마음을 살찌워서 몸이 마르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요. 그대는 또 초나라 장사꾼의 일을 들어 보지 못했습니까? **형산(荊山)의 옥** 하나를 쌓아 두니 그 값은 여러 개의 성으로도 능히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제나라로 갔다가 금은보화가 시장에 쌓인 것을 보고는 마음으로 기뻐하여 이것과 맞바꿔 돌아왔습니다. 대저 금은보화는 진실로 부자가 되는 바탕이지만, 형산의 옥 한 개가 지닌 양부(良富)만은 못합니다. 장사꾼이 그 타고난 부를 잃고 나서는 어느새 밑천 또한 다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장사를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모두들 초나라 장사꾼을 비웃었지요. 이제 그대가 양비를 버리고 평소에 없던 것을 구하니, ㉢ 설령 이것을 얻는다 해도 오히려 장사를 잘하지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찾다가 얻지 못하고 또 본래 지녔던 것마저 잃게 되면 사람들이 이를 비웃으니 어찌 다만 초나라의 장사꾼 정도이겠습니까? ㉣ 이 때문에 옛날의 현인과 군자는 먼저 마땅히 살찌워야 할 것을 살피고 고쳐야 할 것을 살폈던 것입니다. 바탕이 있어 살찌는 것으로 그 몸을 살찌우지 않고, 양비로 그 마음을 살찌웁니다. 몸이 살찌지 않음을 병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이 살찌지 않음을 가지고 병으로 삼지요. ㉤ 이것이 온전해지면 저것을 부러워함이 없으니, 어찌 자기의 형옥(荊玉)을 가지고 금은보화와 바꾸려 하겠습니까?”

— 김석주, 「의훈」 —

1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화자의 인식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나)는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다)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지어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9. <보기>를 참고할 때,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시는 소박하고 일상적인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저력과 위대함을 노래한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어린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강인한 생명력으로 고난을 감내하며 영속적으로 삶을 영위해 온 민중을 떠올린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온 주체인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A]: 하잘것없지만 길이 멀하지 않을 달래꽃은 여리지만 계속해서 삶을 이어가는 민중의 영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렴풋이 이끌려 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민중이 고난을 겪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달래꽃은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 긴 역사와 위대한 힘을 가진 달래꽃의 모습은 역사를 이어 온 민중의 저력을 드러내고 있다.
- ⑤ [C]: 햇볕, 바람, 벌나비와 입 맞추고 살아가는 달래꽃의 모습은 연대하고 화합하는 민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0. [마음]을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마음’은 ‘보드라운’과 연결되어 애상적 분위기를, (나)에서 ‘마음’은 ‘오롯하게’와 연결되어 긴박한 분위기를 환기한다.
- ② (가)에서 ‘마음’은 ‘크나큰’과 연결되어 타인에 대한 과장된 기대를, (나)에서 ‘마음’은 ‘착한 사진사’와 연결되어 타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을 강조한다.
- ③ (가)에서 ‘마음’은 ‘알 수 없는’과 연결되어 대상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나)에서 ‘마음’은 ‘하릴없이’와 연결되어 대상을 수용하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마음’은 ‘조출하게’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절망감을, (나)에서 ‘마음’은 ‘몰아쳐’와 연결되어 상황에 대한 낙관적 자세를 드러낸다.
- ⑤ (가)에서 ‘마음’은 ‘피어나는’과 연결되어 대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인을, (나)에서 ‘마음’은 ‘늘 빈집’과 연결되어 채워졌다가도 비워지는 상황을 드러낸다.

21. (다)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지지 못한 것을 얻으려 하다가 ‘양비’마저 잃게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몸을 살찌우는 네 가지 조건이 ‘양비’의 바탕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몸을 살찌우는 것보다 ‘양비’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옛날의 현인과 군자가 ‘양비’를 지키고자 했음을 통해 마음을 살찌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몸의 병을 고쳐 도덕과 인의를 온전히 한다면 ‘양비’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실재하는 것처럼 구체화하여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한다. (가)와 (나)에서는 추상적인 의미를 감각적인 표현을 활용해 생생하게 구체화하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 주관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한편 (다)에서는 추상적인 의미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마음에 ‘수의’를 걸치고 있다는 표현은, 화자가 벗어나고 싶어 하는 심적인 억압을 옷에 빚댄 표현을 활용하여 주관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손의 ‘핏줄’이 뜨겁다는 표현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촉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생생하게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마루’가 들어와 살았다는 표현은, 화자의 바람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실재하는 대상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마음 안의 ‘고요’가 둥그렇다는 표현은, 화자의 잠잠한 내면을 시각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실재하는 것처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장사꾼이 ‘형산의 옥’을 팔았다는 표현은,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라는 의미를 세속적 가치와 형산의 옥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한 것이겠군.

8

국어 영역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풍설이 잠간 자고 정제가 고요커늘
현창을 널니 열고 병안(病眼)을 높이 드니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엇그제 소년으로 백두옹(白頭翁)이 되어세라

(중략)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가와 다 보노라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玉階)로새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대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의 은잔(銀盞)은 개개히 두렷하니
공장의 성녕인가 천하의 기제로새
공계 위에 새 자취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전한 듯 석양 한천의
날아드는 저 가마괴 눈빛을 더러일사
천지만물 중의 네 홀노 유(類)다르니
소의 호상*으로 개복(改服)들 하야스라
정변 대석은 백호가 준좌하니
이비장* 보듯더면 오호궁을 다랗넋다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통일새
운우(雲雨)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려니
네 등을 잠간 빌어 월중계*를 꺾고자나
유홍이 전심하니* 질병을 다 잊을다
학창의(鶴氅衣)를 잠간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바닥 없슨 신을 신고 설리(雪裏)의 배회하니
맹영이 잊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 홍계영, 「희설」 -

* 경실: 옥으로 만든 집.
* 만가 천향: 온 거리.
* 경요: 옥구슬.
* 습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움.
* 말발: 말발굽.
* 소의 호상: 희고 깨끗한 옷.
* 이비장: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
* 월중계: 달나라의 계수나무.
* 전심하니: 더욱 깊으니.

(나)

울령천(栗嶺川) 긴 감소*에 뉘대 들고 흘겸다가*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제2수>

울령천 백구(白鷗)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겹다 세다 하되다

<제14수>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에에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임이로다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제20수>
- 강복중, 「수월정청홍가」 -

* 감소: 물 웅덩이.
* 흘겸다가: 흘어 건다가.
* 번우한: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 에에쳐: 소리쳐.
* 위군부애정: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후렴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④ 상승과 하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⑤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4. 가마괴와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④ ‘가마괴’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 다음을 참고하여 25번과 2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5.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 (가)의 ‘헌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② 학생 2: (나)의 ‘율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 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③ 학생 3: (가)의 ‘늪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홍’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뉘대’를 들고 흠여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④ 학생 4: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율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⑤ 학생 5: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6.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 모든 병동은 밤에도 환히 눈을 뜨고 있었다. 간호원들은 병실과 병실 사이를 부산스레 헤매고 있었고, 간혹 의사들은 ‘비상’을 알리는 주변 하사 같은 기민한 동작으로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균을 잡아먹는 백혈구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들의 무표정하고 뻣뻣한 얼굴에서, 균을 거부하는 강력한 항생제의 효능을 느껴야 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입원한 이후 저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치 못했다는 중대한 사실이었다. 그런 생각은 참으로 불쑥 일어난 느낌이었다.

언젠가 나는 외국 잡지에서 잘 인쇄된 화장품 광고를 본 일이 있었다. 그 광고는 남자들이 면도 후에 바르는 미안수를 선전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도 그리스 조각처럼 잘생긴 그 남자가 유난히 파르스레 빛나는 턱 위에 지극히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을 기억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심리적인 광고여서, 그 잘 깎은 턱과 웃음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누구라도 그 미안수를 사지 않고는 못 배길 그런 것이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내가 그 최면술 거는 듯한 매혹적인 웃음을 제거하고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면, 나는 그 화보가 미안수 선전 광고라고는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그 병원 의사들은 미안수 선전 광고에 나올 만한 사내들이 미소를 결여하였음으로 하여, 자기 병원 왕래를 권장하는 무표정한 히포크라테스의 모델로 아깝게 전략해 버린 듯 보였다. 그들은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내장을 자르고, 뼈를 긁을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모델로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만약 외무 사원처럼 웃으며 환자의 증세를 물어본다면, 그 환자는 얼마나 심리적인 위안을 받을 것인가.

이리하여 나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게 되었고, 밤낮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려 애를 썼다. 나는 스스로의 청진기를 들고 그들을 진단하기 시작했고, 웃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인(素因)이 그들의 어느 부분에서 강하게 생겨나는가 하는, 임상 실험의 과정에 굉장한 열의를 기울이게 되었다.

(중략)

나는 퇴원하기 하루 전, 휴게실에서 어두워져 가는 병동을 바라보며 그런 생각을 했고 형광등이 환히 빛나는 병동이 흡사 여러 갈래로 유리된 미로와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내게 떠오른 것은 강의 시간에 미로에 빠진 채, 강렬한 먹이의 유혹을 몸부림치며 반추하던 실험용 쥐의 모습이었다. 교수는 엄숙하게 ‘이 쥐는 미로에 빠져 버린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았다. 새로운 방향이 그 쥐에게 열린 것이다. 반복, 반복으로 터득한 ㉠ 안이한 먹이로의 길보다는 충분한 포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미로가 쥐 앞에 전개된 것이다. 나는 그 쥐에 대해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나는 이 철근 콘크리트로 격리한 견고한 미로 속에 쥐 대신 그 젊은 인턴을 삽입해 보자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나는 병동이 잠들기를 기다려 간호원의 눈을 피해 1 병동에 있는 문패와 2 병동에 있는 문패를 모조리 바꿔 버렸다. 나는 그 거창한 작업에 거의 온밤을 새워야 했을 정도였다. 가을밤, 환자

복만을 입고 층계를 수십 번 오르내린 피로와 추위 끝에 나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그러나 **유쾌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내 병실 앞에 걸려 있는 이름은 **해산일을 앞둔** 여인의 문패였으니까 나는 그날 밤만은 **늑막염 환자**가 아니라 **만삭의 여인이 된 썸**인 것이다. 자, 이 병동의 의사와 간호원들은 어떤 방향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나의 인턴이 ㉠ **새로운 방향의 길로** 떠나 주기를 기원했다. 뛰어라, 미로에 빠진 나의 투사여.

다음 날 나는 늦잠을 잤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병동 전체가 달라질** 것임을 의심치 않았다.

오전 여덟 시경. 나는 칫솔을 들고 병실 복도를 어슬렁거리며 무언가 달라진 낱새가 있는가를 관찰하였다. 하지만 섭섭하게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언제나 그러하듯 간호원들은 켜 걸음으로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의사들은 알루미늄 식기 같은 얼굴을 반짝거리며 이 층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침을 치우는 작업부들은 엘리베이터로 식기를 부산스럽게 운반하고 있었고, 병동은 그대로 어항처럼 투명한 건물 속에서 끓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내가 기를 쓰며 가까스로 바꾸어 놓았던 병실 **문패**가 제각기 **제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어느 틈엔가 **고등 동물**인 그들은 제 스스로 미로를 제거할 줄 알게 **사육**된 것이다. 나의 마지막 시도는 그들 앞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만 것이었다.

오전 아홉 시. 의사들은 동물원에서 갓 수입한 열대 동물처럼 때를 지어 회전을 시작했다. 간밤에 수면을 잘 취했는지 그들은 더욱 정결해 보였다.

“오늘 퇴원이시죠?”

우두머리 의사가 가운데 손을 찌르며 여전히 사탕이라도 꺼내 줄 듯한 몸짓으로 물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확하게 대답했다.

“몸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다.”

“퇴원하실 때 간호원에게 약을 받아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윽고 젊은 인턴이 나를 쳐다보았다.

“어젯밤 뭐 잃으신 물건은 없지요?”

“글쎄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아, 예. 다행이군요. 어젯밤에 굉장히 장난꾸러기 소질을 지닌 도둑놈이 들었습니다.”

“헛하하.”

나는 유쾌하게 웃었다.

“병원에 피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직까진 발견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오전 중으로는 판명이 되겠지요. 저, 그럼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제각기 무어라고 주의말을 주면서 사라져 버리자, 젊은 의사는 내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 최인호, 「견습 환자」 —

2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물의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B]는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B]는 시간의 역전을 통해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전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B]는 직접 경험한 일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28.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웃음을 화장품 광고에서 목격한 적이 있다.
- ② ‘나’는 ‘그날 밤’에 몸이 지치도록 밤새 병동을 오가며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였다.
- ③ 간호원들은 ‘다음 날’에 평소와 마찬가지로 분주하게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 ④ 우두머리 의사는 ‘오전 아홉 시’경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며 퇴원을 제안하였다.
- ⑤ 젊은 인턴은 병원에서 발생한 ‘어젯밤’의 사건과 관련하여 ‘나’의 피해 여부에 대해 물어 보았다.

29. ‘나’의 관점을 중심으로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쥐가 반복적으로 ㉠에서 방황하는 것은 충분한 포식을 즐기는 중요한 방법이다.
- ② 젊은 인턴 스스로 투사가 되기를 다짐한 것은 ㉡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 ③ 젊은 인턴이 미로에 빠졌다는 것은 ㉡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쥐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부재한 미로이지만, 젊은 인턴에게 ㉡은 선호하는 목표가 뚜렷한 미로이다.
- ⑤ 쥐는 익숙한 먹이를 위해 아직 학습되지 않은 ㉠을, 젊은 인턴은 낯선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장차 도달해야 할 ㉡을 선택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병원’은 엄격하게 통제되는 공동체를 상징하며, 이러한 공동체의 시스템에 길들여진 인물들은 기계적 일상에 매몰되어 감정이 제거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작품은 치료의 대상이 치료의 주체가 되는 인물 간의 역할 전도의 방식을 통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와 실패의 과정을 보여 주며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나’가 ‘문패를 모조리 바꿔’서 ‘병동 전체가 달라’지게 하려 한 것에서 공동체의 시스템을 교란하고자 하였음을 엿볼 수 있군.
- ② ‘나’가 ‘미소를 결여’한 의사들이 ‘무표정한’ ‘모텔’로 ‘아깝게 전락’했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감정이 제거된 인간에 대한 연민을 엿볼 수 있군.
- ③ ‘나’가 ‘유쾌한 마음’으로 잠들며 자신이 ‘해산일을 앞둔’ ‘만삭의 여인이 된 셈’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인물의 역할이 치료의 대상으로 전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가 떠올린 ‘일 초의 주저함도 없이’ 수술할 수 있는 ‘권위를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하는 듯한 의사들에게서 기계적인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나’가 ‘사육된’ ‘고등 동물’에 의해 ‘문패’가 ‘제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통제된 공동체에 길들여진 인간에 의해 자신의 시도가 실패했다고 여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사는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경성 남산 밑과 연접한 곳에 한 채의 작은 초가에 거처하였다. 낮이면 남산에 밭 갈기 하고 밤이면 고인의 글을 상고하고 한가할 때는 한강에 고기를 낚아 노모에게 지극히 봉양하고, 심씨는 한결같이 품팔이로 시어머니에게 지극히 봉양하더니, 금년 같이 특별한 해에 궁춘(窮春)하여 월초에 팔십 노모 우연히 병을 얻어 진사가 천 가지 만 가지로 치료하고 하나님께 빌면서 노모 환후 쾌히 회복하기를 발원하고, 부인은 좋은 약을 구해 시중을 들면서 회춘(回春)하시기를 하늘에 빌어 본들 하늘에 매겨진 수명을 어찌 인력으로 하겠는가.

불과 오륙칠 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진사는 머리맡에 앉아 통곡하고 심씨는 발치에서 통곡하니 곡성이 진동하였다. 어느 노비가 있어서 죽반을 권하며 어느 일가친척이 있어서 초종례(初終禮)를 염려해 주겠는가.

불과 삼일에 이르러 힘이 다하여 곡성도 내지 못하고 힘이 다하여 부부 엎어졌는데, 비몽사몽간에 부친이 이르되, “너희들이 이러하다가 노모의 초상을 잘 치르지 못하면 불효를 면치 못하리라. 그리 말고 집안을 뒤져 보면 두 홉 양식이 있을 것이니, 죽이나 끓여 먹고 자학동 오홍 대감 댁을 찾아가면 자연히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시거늘,

진사 놀라 깨어 부인을 깨워 **몽사(夢事)**를 이야기하니, 부부의 꿈이 똑 같았다.

일어나 부엌에 가서 뒤져 보니 과연 두 홉이 있거늘, 갱죽을 끓여 먹고 진사가 부인에게 하는 말씀이,

“부인은 어머님 신체를 모시고 몸을 보전하소서. 몽사가 비록 허사이기는 하나, 이 죄인은 자학동으로 가 보리다. 만일 일가친척을 만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의 일신을 팔아서라도 **초종례**는 마쳐야 아니 하겠소.”

심씨 대답하기를,

“첩도 함께 가겠습니다.”

진사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대 심 상서의 옛 따님이요 현재의 **전라 감사의 귀한 여식**으로서, 어찌 남의 집 **방비(房婢)**가 되려 하십니까. 죄인이 혼자 가겠습니다.”

심씨가 대답하기를,

“해 가는 데 달이 가고 **부창부수(夫唱婦隨)**는 삼종(三從)의 떳떳한 바입니다. 임금이 옥되면 신하가 죽고 가장이 곤욕을 당하면 그 아내인들 곤욕을 면하리오. 부부는 한 몸이니 첩도 기어코 한가지로 하겠나이다.”

심씨가 **가겠다고 하며 따라나**섰다. 진사가 마지못하여 밖에 나와 방문을 잠그고 부부 손을 이끌고 자학동을 찾아가니, 문밖에 수문(守門) 군사 많이 있었다.

군사를 대하여 말하기를,

“이 댁이 오홍 대감 댁입니까?”

군사가

“그렇다.”

고 하니,

“잠깐 대감을 뵈옵고 신원(伸冤)할 말씀이 있사오니 통지하옵소서.”

한 군사 통지하여 들라 하거늘, 진사 들어가 뜰아래 두 번 절하고 땅에 엎드렸다. 대감이 보시더니,

“너는 어느 뉘 댁 비복이냐?”

진사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A] “소인은 전라도 남원에 거주하는 구대 진사 댁 비복이온대, 진사님 금년 같은 별연 궁춘에 팔십 노모님 초상을 당하시어, 미처 염습제구(殮襲諸具)를 준비하지 못하시어 소인 내외를 팔려고 하여 저희들이 왔나이다.”

대감이 본래 적선하기를 좋아하는지라.

“너희 둘을 팔려고 한다면 얼마나 달라고 하던가?”

진사가 말하기를,

“오십 냥이면 넉넉히 된다고 합니다.”

대감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충노충비(忠奴忠婢)로구나.”

하시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가서 네 상전의 초종(初終) 양례(兩禮)까지 치른 후에 와서 드난하라.”

하시었다.

[중략 줄거리] 진사는 대감이 준 돈을 가지고 어머니의 상을 치르러 떠나고 부인은 대감의 집에 남아 노비로 지내며 고초를 겪다가 두 사람의 본래 신분이 밝혀진다.

대감은 그 길로 탑전에 들어가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소신이 천한 나이를 먹어서 조정에도 응당 추잡한 일만 할 것이니, 신은 집으로 물러가오리다.”

전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옥루(玉淚)**를 흘리시고 가라사대, “경이 무슨 추잡한 일이 있어서 **거짓 칭탈(稱頌)**을 하는고?”

하시니 대감이 다시 아뢰어 가로되,

“신이 어두워 전라도 남원에 거한 구대 진사 이태경을 몰라보고 천사(賤事)의 **노복**으로 몇 달 부렸사오니, 신의 **죄**를 조정에 전하시어 **국법을** 바르게 하옵소서.”

전하가 말씀하시기를,

“경의 말을 짐이 전혀 모르겠구나.”

하시매 대감이 다시 아뢰기를,

[B] “다름이 아니오라 태경이 금년의 별연 궁춘에 팔십 노모에 초상을 당하여 염습제구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저의 내외에게 팔려온 것을, 신이 아득히 몰라보고 몇 달 부렸사옵나이다. 신의 죄가 이만저만 아니오니, 이에 상달하나이다.”

전하 들으시고 옥루를 흘리시고 말씀하시기를,
“태경의 효성은 짐도 몰랐거든 경이 어찌 알리오. 짐이 구중
궁궐에 깊이 처하여 민간의 적자와 백성이 이같이 빈곤에 빠
져 있어도 아득히 몰랐으니, 이는 경의 죄도 아니요 태경의
죄도 아니요, 이는 짐의 죄로다. 수원수구(誰怨誰咎)하리오.”
하시었다.

상이 친히 황금 일천 량과 백금 일천 향과 향촉 이백 병과
백지 오백 동을 하사하시고 조상 부의금도 하사하시었다.

— 작자 미상, 「이태경전」 —

31.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비판하고 있다.
- ② 인물의 회화화를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화와 삽입된 노래를 통해 인물들의 심회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장면 전환을 나타내는 상투어를 사용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2. 몽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을 꾸 주체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꿈을 꾸 주체들에게 출생 내력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꿈을 꾸 주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꿈을 꾸 주체들에게 몰아일체의 경지에 오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⑤ 꿈을 꾸 주체들에게 서로의 생사 여부를 짐작하게 하는 징표를 제
시하고 있다.

33.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 상대를 비방하고 있고, [B]는 화해를
유도하기 위해 상대를 칭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상대를 격려하고 있고, [B]는 사
건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있다.
- ③ [A]는 자신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고,
[B]는 상대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A]는 자신의 실망감을 전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고, [B]
는 상대에게 원망을 전하기 위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다.
- ⑤ [A]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짓을 말하고 있고, [B]는
상대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태경전」은 유교적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선 사회를 배경
으로 한다. 유교 사상은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 등의 관계뿐만
아니라 군왕을 중심으로 한 서로 다른 신분의 상하 관계에서 실
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기반으로 하는 질서로 구체화되었다.
경제적인 궁핍 등의 이유로 유교적 질서가 위협 받는 상황에서
도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출되는 모습을 통해 유교적 질
서가 당대의 이상적인 지배 질서였음이 드러난다.

- ① 진사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노력했으나 돈이 없어 ‘초종례’
를 치르기 어려운 상황을 보니, 궁핍으로 인해 부모 자식 사이의
도리를 지키는 것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심씨가 ‘전라 감사의 귀한 여식’임에도 ‘방비’가 되겠다는 모습을
보니, 자신의 본래 신분과 다른 신분이 되려 했던 경우가 있었음
을 알 수 있군.
- ③ 심씨가 ‘부창부수’를 근거로 진사의 제안을 거절하고 함께 ‘가겠다
고 하며 따라나’서는 것을 보니,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유교적 질
서를 지키고자 하는 상황을 알 수 있군.
- ④ 임금이 ‘옥루’를 흘리며 대감에게 ‘거짓 칭탈’을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을 보니, 군신 간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신하가 군왕에 대
한 윤리적 덕목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을 알 수 있군.
- ⑤ 대감이 이태경을 ‘노복’으로 부린 것을 ‘죄’라고 여겨 ‘국법’을 바르
게 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 신분 질서가 지켜지는 것을 바람직하
게 여기는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제 1 교시

1

[35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선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단어는 발음되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 조사 ‘이’, ‘만’, ‘도’와 결합한 것을 발음되는 대로 적으면 ‘꼬치’, ‘꼰만’, ‘꼰또’이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 ‘꽃이’, ‘꽃만’, ‘꽃도’와 같이 ‘꽃’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적도록 하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발음을 고려한 대표 형태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표기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용언의 어간에 어미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언제나 어법에 따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대표 형태로는 여러 발음들이 나타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씨요], [인는데요], [인떠라고요]와 같이 발음한 것을 한글 맞춤법에 따라 표기하기 위해 대표 형태를 선택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있-’, ‘인-’, ‘인-’ 중에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인는데요]는 비음화, [인떠라고요]는 된소리되기로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씨요]는 설명할 수 없다. ‘인-’을 대표 형태로 본다면 [이씨요]와 [인떠라고요]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있-’을 대표 형태로 선택하면 [이씨요]는 음운 변동 없이 연음된 것으로, [인는데요]와 [인떠라고요]는 모두 교체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있-’을 대표 형태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와 달리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놓으니’, ‘놓다’는 [노으니], [노타]로 발음되는데 어간을 ‘놓-’이라는 대표 형태로 고정하여 적고 있다. 왜냐하면 대표 형태가 ‘노-’라면 [노타]를 설명할 수 없지만 ‘놓-’이라면 [노으니]는 탈락, [노타]는 축약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들어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덥고, 장마의 시작과 끝이 언제일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 ① ‘들어’를 발음할 때는 음운 변동이 나타나지 않는군.
- ② ‘더운’과 ‘덥고’는 어간의 의미가 같지만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적지 않은 경우이군.
- ③ ‘여름’, ‘장마’는 표준어를 발음되는 대로 표기한 것이군.
- ④ ‘끝이’를 ‘꼬치’로 적지 않은 것은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 때문이군.
- ⑤ ‘부릴’의 어간은 실제 발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형태를 대표 형태로 선택해 표기한 것이군.

36. ㉡를 고려하여 <보기>의 ㉠ ~ ㉢의 대표 형태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다음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의 발음이다.

어미 어간	-고	-아서	-지만	-는
㉠	[깅꼬]	[까까서]	[깅찌만]	[깅는]
㉡	[달꼬]	[다라서]	[달치만]	[달른]
㉢	[싸꼬]	[싸아서]	[싸치만]	[싼는]
㉣	[할꼬]	[할타서]	[할찌만]	[할른]
㉤	[갑꼬]	[가파서]	[갑찌만]	[갑는]

- ① ㉠: 대표 형태가 ‘깅-’이라면 [깅찌만]과 [깅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깅-’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② ㉡: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달꼬]와 [달치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달-’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 대표 형태가 ‘싼-’이라면 [싸꼬]와 [싸아서]를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쌍-’이라면 둘 다 탈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④ ㉣: 대표 형태가 ‘할-’이라면 [할꼬]와 [할찌만]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활-’이라면 둘 다 축약으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⑤ ㉤: 대표 형태가 ‘갑-’이라면 [갑꼬]와 [갑는]을 음운 변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대표 형태가 ‘갇-’이라면 둘 다 교체로 설명할 수 있겠군.

37. <보기 1>의 ㉠ ~ ㉢에 해당하는 예만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연결 어미 ‘-고’의 쓰임은 다양하다. 먼저 ㉠ 앞 절과 뒤 절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경우가 있다. 또한 ㉡ 앞뒤 절의 두 사실 간에 계기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나, ㉢ 앞 절의 동작이 이루어진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뒤 절의 동작이 일어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보기 2>

- 그들은 서로 손을 쥐고 팔씨름을 했다. ㉠
-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
- 나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 눈 깜짝할 사이에 다리가 벌에 쏘이고 통통 부었다. ㉣
- 그 책은 내가 읽을 책이고 이 책은 내가 읽은 책이다.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38. <보기>의 ㄱ ~ ㄷ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 ㄱ. 신중한 그는 고민을 가족들과 의논했다.
 ㄴ. 너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좀 씻어!
 ㄷ. 네가 들은 소문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 ① ㄱ의 ‘신중한’은 안은문장의 필수 성분이군.
 ② ㄱ의 ‘가족들과’와 ㄷ의 ‘정말’은 생략이 가능한 성분이군.
 ③ ㄴ의 ‘먹기’는 안긴문장의 부속 성분이군.
 ④ ㄴ의 ‘너는’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군.
 ⑤ ㄷ의 ‘네가’와 ‘사실이’는 각각 다른 서술어의 주어이군.

39.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羅雲(나운)이 저머 노르술 즐겨 法(법) 드로몰 슬히 너겨 ㅎ거 든 부테 즈로 니르샤도 從(중)ㅎ습디 아니ㅎ더니 後(후)에 부테 羅雲(나운)이드려 니르샤디 부터 맛나미 어려브며 法(법) 드로 미 어려브니 네 이제 사르믹 모들 得(득)하고 부터를 맛나 잇느 니 엇데 게을어 法(법)을 아니 듣는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나운이 어려서 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니, 부처가 자주 이르셔도 따르지 아니하더니, 후에 부처가 나운이더러 이르시되, “부처를 만나기가 어려우며 법을 듣기 어려우니, 네가 이제 사람의 몸을 득하고 부처를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아니 듣는가?”

- ① ‘부테’를 통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가 결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니르샤도’를 통해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從(중)ㅎ습디’를 통해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어려브며’를 통해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사르믹’를 통해 현대 국어와 다른 형태의 관형격 조사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 ~ 43] (가)는 라디오 방송을 위한 진행표이고, (나)는 라디오 방송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

초대 손님: 자율 주행 연구소장 최○○ 교수

#1. 시범 사업을 △△시에서 하는 이유는?

#2. 시범 사업의 성과는?

#3. 향후 달라질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은?

(나)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지역 이야기’ 492화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최○○ 교수님과 우리 △△시의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교수님,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시는 관련 연구 시설이 있고, 도시의 도로 조건이 새로운 자율 주행 기술을 적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시의 입장에서든 일반 대중교통의 운행이 힘든 시간대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 작년부터 시범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리 지역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들의 수요가 있어 적합하다는 말씀이지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 사전 체험단을 대상으로 운영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 네, 이번 사업을 통해 ㉢ 우리 연구소는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에 활용할 데이터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덕분에 운행 중 운전자의 개입 횟수를 줄여 자율 주행 본연의 기능을 실현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행자: 사전 체험단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 10점 만점에 9.2점이다군요. ㉣ 시범 사업이 시민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만큼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네요. 교수님, ‘보이는 라디오’의 실시간 채팅창에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까요?

전문가: 사전 체험단에 참여하신 분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반응을 직접 남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이 있는지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군요. 자율 주행 버스에 안전 요원이 상시 탑승해 있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직접 운전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진행자: 마지막으로 다음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들 반가워하실 거예요. 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시범 사업의 운영 방안을 소개해 주세요.

전문가: 네, 앞으로는 ㉤ 지역 주민 중 사전 체험단이 아니었던 주민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공원까지의 기존 노선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정류장 등을 추가하여 노선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최 교수님의 도움으로 알찬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더 남기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 청취자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40. (가)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제시한 의견을 요약하며 확인하고 있군.
 - ② ‘#1’에서 전문가는 방송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두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고 있군.
 - ③ ‘#2’에서 진행자는 전문가가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2’에서 전문가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진행자가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고 있군.
 - ⑤ ‘#3’에서 진행자는 청취자들의 예상 반응을 언급하며 이와 관련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군.

41. 다음은 ㉠의 일부이다. 청취자의 수용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청취자 게시판

청취자 1 자율 주행 기술 수준이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자율 주행 버스가 몇 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오늘 방송에 안 나왔네요.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청취자 2 다음 달부터는 저도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네요! 공원에 갈 때 이용하면 무척 편리할 것 같아요. 버스 탑승 시간이 궁금했는데, 버스 시간표를 알려 주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청취자 3 자율 주행 버스가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시간에 귀가하는 우리 지역의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자율 주행 기술 상용화에 따른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 ① 청취자 1은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였다.
- ② 청취자 2는 방송에서 제시한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③ 청취자 3은 방송에서 특정 내용이 강조된 의도를 추론하였다.
- ④ 청취자 1과 3은 방송에서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얻는 방법을 요청하였다.
- ⑤ 청취자 2와 3은 방송에서 제시한 내용이 유용한지 점검하였다.

4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보조사 ‘부터’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 시범 사업이 시작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피동 접사 ‘-되다’를 사용하여 시범 사업을 운영한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격조사 ‘에’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이 자율 주행 기술 수준 향상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존 명사 ‘만큼’을 사용하여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감의 근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자율 주행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43. <보기>는 보이는 라디오를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 홈페이지 화면의 일부이다. (나)와 <보기>의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노선도

도서관 공원 시청

5.3km → 10.5km 노선 연장 확정!

● 실시간

[지난 방송 다시 보기] 491화 자율 주행 기술의 원리

[실시간 채팅창]

구름이 저도 사전 체험단이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용하고 싶어요.

초록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안전 대책은 있는지 걱정됩니다.

메시지 입력하기... 등록

- ① (나)에서 언급된 시범 사업 성과가 <보기>에서는 자막으로 요약되어 있다.
- ② (나)에서 언급된 노선 정보가 <보기>에서는 시각 기호가 표시된 지도로 보충되고 있다.
- ③ (나)에서 언급된 정류장 추가에 대한 정보가 <보기>에서는 비언어적 표현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 ④ (나)에서 언급된 사전 체험단 경험에 대한 반응이 <보기>에서는 실시간 채팅창에 제시되어 있다.
- ⑤ (나)에서 언급된 자율 주행 기술에 대한 지난 방송 내용이 <보기>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퍼링크로 제공되고 있다.

[44 ~ 45] (가)는 환경 동아리 블로그이고, (나)는 (가)를 참고하여 만든 애플리케이션 제작 계획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 '기후 행동'

지구의 기온이 1℃만 올라가도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위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들이 바로 기후 행동입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의 동아리들도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950년

30건

2010년

520건

+1℃

[지구 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 건수 증가 추이]

우리 학교 사회 참여 동아리에서는 플라스틱 수거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왼쪽 사진과 같이 버려진 페트병을 수거하고, 플라스틱 사용이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활동입니다. 인근 학교의 동아리에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옷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옷에도 환경 인증 등급을 적용해 달라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의 활동은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 행동은 개인의 일상적 실천의 확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하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등을 꾸준히 실천하고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면 기후 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 학생 기자

(나)

	화면 구성	화면 설명										
1	위기의 지구 지금 도와달라구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하여 시작 화면을 제시함.										
2	기후 행동 체크리스트 <table> <tr> <th>항목</th><th>체크</th></tr> <tr> <td>빈 교실 전등 끄기</td><td>✓</td></tr> <tr> <td>급식 남기지 않기</td><td></td></tr> <tr> <td>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td><td>✓</td></tr> <tr> <td>⋮</td><td></td></tr> </table>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구체적 항목들을 제시하여 자신의 실천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항목	체크											
빈 교실 전등 끄기	✓											
급식 남기지 않기												
교실 계절별 적정 온도 유지하기	✓											
⋮												
3	기후 행동 실천 7일째 사진 올리기 공유하기	자신의 실천 일지를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										

4

식생활 정책 제안

내용 작성

전송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하여 관련 기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함.

44. (가)에 나타난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후 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강조하였다.
- 기후 행동의 국가 간 차이를 글자의 굵기와 크기를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 인근 학교 동아리의 페트병 수거 현황을 소재목을 사용하여 부각하였다.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건수의 양적 변화를 도식화하여 나타내었다.
- 기후 행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 주었다.

45. (가)를 참고하여 (나)를 만드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 제작자가 고려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에 제시된 개인의 일상적 실천 사례를 참고하여,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해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의 개념을 참고하여, 기후 위기를 보여주는 이미지와 문구로 시작 화면을 구성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꾸준한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성공적인 실천 결과를 누적할 수 있는 일지를 제공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이어지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동아리의 정책 제안 활동을 참고하여, 청소년이 관련 기관에 제안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기후 행동에 참여하도록 해야겠어.
- (가)에 제시된 기후 행동 확산의 중요성을 참고하여, 자신의 실천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개인의 실천이 다른 사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겠어.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 / 20